

한·불 식민지시기 종교정책과 그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 기독교를 중심으로  
김세원 (소피아대학교)

서론

한국의 천주교 역사는 1783년 이승후의 전도를 통해 그의 인척인 이가환, 정약종,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신앙단체를 성립된 때로 볼 수 있으며, 한국 개신교 역사는 1882년 한미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독교가 제대로 한국에 자리잡기도 전, 기독교가 막 틀을 잡아 갈 무렵인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여 정치적으로 큰 혼돈에 빠지게 되었으며 불가리아는 864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500년이 지난 시점인 1396년에 투르크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불가리아, 양국이 겪었던 식민지시기에 있었던 종교정책을 다루되, 한국의 종교 중 기독교로 제한하여 양국의 종교정책을 비교할 것이며, 불가리아 식민지 시기인 1396년 - 1878년 중 특별히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좌의 불가리아 교회 치리에 반대하고, 결국 불가리아 민족교회 승인을 얻어 내는 시기 즉, 1767년-1870년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1930년대에는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국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큰 장애물이 되었으며, 불가리아 교회는 투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좌의 불가리아 교회 치리를 인정했던 바, 불가리아 교회로 하여금 슬라브계 민족을 위한 교회 언어로 창제된 슬라브어를 말살하고 그리스어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설교를 듣도록 정책을

핀 ‘그리스 문화 확장 정책’을 시행했던 시기를 다루려고 한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서구선교사들과 한국교회와의 관계와, 정치적으로는 투르크 지배하에,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지배라는 이중 지배하에 놓이게 된 불가리아 교회의 모습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 1. 양국의 기독교

### 1.1 기독교의 한국 선교

1783년 겨울,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갔던 스물일곱 살의 청년 이승후가 북경에서 천주교사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 온 후, 그의 인척인 이가환, 정약중,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신앙단체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머릿돌이 되었다. 1794년 겨울, 최초의 선교사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역부로 변복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 왔고 1836년 프랑스 신부 ‘모방’이 의주로 몰래 들어 오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후, ‘샤스탕’, ‘앙베르’가 들어왔으나 1839년 사형을 당했다. 그 후, 1845년에야 최초 한국인 신부 김대건의 활동으로 카톨릭측 선교사가 들어 오게 되었다. 개신교는 1832년 독일 선교사 ‘구즈라프’가 충청도 바닷가까지 왔으나 실패로 끝났으며, 1866년 영국인 ‘토머스(최난헌)’는 평양에서 참살당했으며, 그 후 영국인 ‘존 로스’가 만주에서 한국 전도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 인쇄하여 들여 보낸 일이 있다. 공식적인 개신교 선교시기는 1882년 한미조약이 맺어진 이후이다<sup>1</sup>.

---

<sup>1</sup>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2006) p. 363-365 참조.

## 1.2 불가리아 기독교의 비운

1453년 투르크족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천 년에 걸친 비잔틴 기독교 문화의 종말을 가져왔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존경하며,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인정하는 이슬람교는 16세기와 17세기 동안 관대하게 정교회를 대했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던 술탄 무하메드 2세는 총주교구좌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었으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 치하의 기독교는 이류 종교요, 기독교도는 이류 시민으로 취급되었다. 기독교인은 과중한 세금을 바쳐야만 했으며, 구별되는 옷을 입었으며, 군복무가 불허하였으며, 이슬람교도인 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교회의 선교활동을 금하였고, 이슬람교도를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되었으며, 물질적 이유로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도로 개종할만한 유혹은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교회의 전체적 위계 조직은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 갔다.<sup>2</sup>

## 2. 양국의 종교 정책

### 2.1 일제의 종교정책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정책은 ‘천황제 체제’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근대 일본의 종교정책은 ‘신도국교화 정책’을 통한 천황제 종교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는 제국헌법이 이른바 ‘신교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결국 국가신도와 천황의 권위를 ‘신사비종교론(神社非宗教論)’을 통한

<sup>2</sup> 데니얼. B. 클레데닌, 『동방 정교회 개론』, 김도년 역, (은성, 1996) p. 67 참조.

‘초종교(超宗教)’의 위치에 올려 놓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종교화’와 ‘초종교’적 성격 규정이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국가신도와 천황제에 더욱 강력하고 차원 높은 종교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882년 신사신도(神社神道)를 국가의 제사로 삼음으로써 일반 종교와 분리시키는 정책을 세웠고, “신사신도(神社神道)는 국가의 제사이며 종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은 신사신도가 불교, 기독교 등의 다른 종교들 위에 군림하는 초종교적(超宗教的)인 위치와 국교에 대한 지배와 통제, 신교의 자유, 정교(政敎)의 분리론에 의한 비판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sup>.

## 2.2 투르크 제국의 종교정책 - “그리스 문화 확장 정책”

“그리스인들은 불가리아 자치 교회를 지켜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민족을 싫어했다”<sup>4</sup>고 카멘 딘코프는 말한다<sup>5</sup>. 동화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그리스인들은 불가리아 교구 내 최고 지위로부터 최하 지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문화 확장 정책”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대교구, 주교 그리고 사제 직책을 그리스인이 맡았고, 그리스어로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였으며, 그리스어로 설교를 하도록 하였다.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

<sup>3</sup> 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 (한울, 2000) p. 80-82 참조

<sup>4</sup> “카멘 딘코프”는 “아톤”수도원과 “마케도니아” 수도원에 소장된 고불가리아어 필사본 화재 사건 및 “벨리코 트르노보” 대주교 도서관 화재 사건은 그리스인의 슬라브어 문헌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고 본다.

<sup>5</sup> 카멘 딘코프, 『불가리아 교회사』, (영성 학부 ”성 클리먼트 오희리드스키“) p. 66 참조

동화정책은 점차 시골로까지 확산되었으며, 특별히 그리스 인접지역인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에 가장 거센 ‘그리스’ 물결이 밀려들어 왔다. 그리스 지도자들 중에 슬라브어를 경멸했던 자들이 슬라브어 문헌과 교육용 교재를 그리스어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리스 정교회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 섰다<sup>6</sup>.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리스 문화 확장 정책’의 영향으로 대도시의 많은 불가리아인들에게 그리스어 교육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경제력이 있는 불가리아인들은 그리스학교 설립과 운영에 기여하기까지 하였다. ‘벨리코 트르노보’의 지주들은 그리스어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시작하였으며, 불가리아인들은 국세보다 그리스 정교회에 더 많은 세금을 바치는 사례<sup>7</sup>가 횡행하였다.

하지만, 그리스인 부재 지역인 발칸산맥 부근 지역 수도원에서만큼은 “킬리이노 교육<sup>8</sup>”을 통해 불가리아어 교육이 가능했으며 민족의식을 활발히

<sup>6</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66 참조

<sup>7</sup> 술탄칙령에 의하면 ‘굴뚝 하나’당 11을 걷도록 되어 있었으나 기부금이라는 명목하에 7 ‘그로샤’씩을 더 걷기로 한 것. ‘네오피트 보즈벨리’는 그리스 통치자들의 세금 횡령과 악행으로 인해 ‘모국 불가리아’가 얼마나 휘청거려야 했는지를 잘 묘사해 준다. 그리스인 통치자가 세금을 걷기 위해 떠날 때 보통 지주 15명, 사제와 부사제 35명, 집사 4명, 수도사 25명, 마을주민 65명, 문예인 2명, 주막주인 1명, 요리사 1명, 담배 파이프 제조업자 2명을 거느리고 다녔다고 한다. 마을 주민은 위 ‘군대’가 국세와 종교세를 다 거둘 때까지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해야만 했다고 카멘 딘코프는 전한다. 투르크 정부는 콘스탄티노플 총주교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스인 교회 치리자가 16세이상 불가리아인에게 6 ‘그로샤’씩을 ‘콘스탄티노플 종합세’라는 명분으로 통치자금을 걷을 때 각 관할청은 협조를 바란다”는 하달을 내렸다.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67-82 참조.

<sup>8</sup> ‘킬리이노 학교’는 투르크 지배기간 내내 존속했으며 ‘트라브나’, ‘엘레나’, ‘브라짜’, ‘가브로보’, ‘사모코프’, ‘칼로페트’, ‘카를로보’, ‘소포트’ 등지에서 실행되었으며 특별히 18세기에는 수직

함양시킬 수 있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권과 정치적으로는 투르크 영향권에서 벗어난 수도원에서만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조를 영위할 수 있었다. 또한, 초등교육과정을 담당했던 수도사들의 마을 순회는, 우매한 불가리아 백성들을 향한 맹렬한 ‘그리스 문화 확장 정책’ 포부를 미미하나마 차단할 수 있었다. ‘틸라’수도원에서 불가리아인 신도는 언제나 불가리아어 예배 집례와 불가리아어 설교를 접할 수 있었다. ‘틸라’수도원은 불가리아 민족 정기 수호의 보고 기능을 감당해 냈다<sup>9</sup>.

### 3. 양국 교회의 독립운동

#### 3.1 한국교회의 교회 독립 운동

백인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과 혐오는 당시 한국 민족 교회 운동의 기초를 이루는 정서적 문제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sup>10</sup>.

“서양선교사들은 본래 백인종이라 남을 감시하는 것은 저의 특성이라, 아부하는 말을 듣기 도화하며, 선 불선을 물론하고 자기네게 절대 복종만 하면 선인으로 알아서 신용하니 교회의 집권자들은 점점 간사한 무리가 만하 간다. 그러나 우리가 서양인을 의뢰하여 교회를 설립할 것은 아니니 이는 여기 두말할 것 업시 소위 상회(上會)라 하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교회를

---

으로 확연한 증가를 보이는데 사제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통해서도 ‘킬리이노 학교’가 개설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경에 이르러서는 불가리아 전역과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에 엄청나게 확산되었다.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68 참조.

<sup>9</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67-68 참조.

<sup>10</sup> 민경배, 상계서, p. 176-189 참조.

보호하는 듯하나, 그 내용은 전혀 집권자의 지위를 견고케 하라는 것뿐이라<sup>11</sup>.”

“미국인에게 의뢰할 수 없음<sup>12</sup>을 자각하고 스스로 자관하여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의 감리조정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

언더우드부인(L. H. Underwood, 1851-1921)의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독립협회 활동과 독립의 기운을 타고 중앙교회(Central Church)가 모든 선교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교회를 선포하였다.”<sup>13</sup>

일제의 보고서에서도 ‘반 선교사’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최근에 조선인 일반의 자유사상이 발달됨에 종교계에 있어서도 외국인 선교사의 이사에 감심하지 않고 그 전단적 태도에 반감을 가지게 되어, 교회의 독립 포교의 자유 혹은 대우의 개선을 부르짖는 자가接踵하여 일어나, 황해도와 경상북도의 목사 중에는 이미 외인의 기반을 이탈하고

---

<sup>11</sup> 민경배, 상계서, p. 188-189 참조.

<sup>12</sup> 감리교회의 ‘존스(G. H. Jones, 1867-1919)’는 “한국인에게 지금(1907) 필요한 것은 잘 정의된 법의식과 합법적으로 확립된 권위에 대한 존경”이라 해서 통치 실체인 일제에의 순종을 종용하였다. 장로교회의 ‘쿤스(E. W. Koons, 1880-1947)’는 “우리들은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의무는 일본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되 달가운 마음으로 하고, 독립을 위해서 부동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고백했다. ‘웰즈(J. H. Wells, 1866-1952)’는 한국에서의 복음의 확장 과 그리스도왕국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까지 한다. 민경배, 상계서, p. 58-59, p. 159 참조.

<sup>13</sup> 민경배, 상계서, p. 170 참조.

독자적 포교를 개신한 자가 있다<sup>14</sup>.”

서북교회는 장로교회 대세의 보수주의적 신앙 정착으로, 선교사들의 영향권이 무리 없이 발휘되고 있었으며, 불만도 없었다. 비 서북지역에서는 선교사에 대한 불만이 완연히 드러나 있었다. 동지회의 국내 영도자<sup>15</sup>였던 신흥우는 국내의 일반교계에 대하여 일종의 혁명의식을 가지고 토착적인 한국적 교회 수립을 목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의 일부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규합하였다. 창설단원은 감리교회의 정춘수, 신공숙, 김인영, 박연서, 구자옥, 홍병덕, 김태원, 엄재희 등과 장로교회의 함태영, 최석주, 박용희, 권영식, 전필순 등이었으며, 정성채, 이건춘, 유억겸, 김종금, 김영섭이 관여했으며, 박희도, 박동완, 김활란, 유각경 등도 한 때 관련을 맺고 있었다. 감리교회 총리사 양주삼(1879-1950)과 감리교회인으로 YMCA 원로였던 윤치호(1864-1945)는 이 집단을 “비밀결사”요, “파시스트적 경향”이 있다고 단죄하였다<sup>16</sup>.

적극적 신앙단과는 달리 성서를 근간으로 민족교회를 꿈 꾸 김교신은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근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합니다. 혹자는 영적 체험의 신비세계를 역설하며, 혹자는 신학세계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합니다.<sup>17</sup>”라는 입장 표명을 통해 성서를 중심으로 한 민족 교회를 꿈

<sup>14</sup> 민경배, 상계서, p. 177 참조.

<sup>15</sup> 민족주의 단체는 안창호계의 흥사단과 이승만(1875-1965)계의 동지회 양대 진영으로 나뉜다. 민경배, 상계서, p. 178참조.

<sup>16</sup> 민경배, 상계서, p.178-179 참조.

<sup>17</sup> 창간사, 『성서조선, 김교신 신앙저작집, II』 (창간사, 1965), p. 20 참조.



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 일본경찰은 ‘성서연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성서조선의 일당들이야말로 팔딱팔딱하며, 결사나 꾸미는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뛰어 넘는, 조선민족의 백 년 아니 오백 년 후를 계획하는 최악질이다.”

김교신은 끝까지 창씨개명<sup>18</sup>을 거부한 인물로 한국이름 김교신으로 살다가 1945년 4월 홍남에서 세상을 떠났다<sup>19</sup>. 동경대학 총장을 지낸 바 있는 知内原忠雄도 김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애국을 삼았다고 평하며, 김교신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인이었다.”고 말한다<sup>20</sup>. 김교신은 기독교로써 민족의 종교를 확립하려 했고, 교회 밖에 대한 선교와 구원의 방편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애써 외쳤던 인물이다.

### 3.2 불가리아 교회의 교회 독립운동

‘엘레나’ 출신의 ‘요셉 브라다티’는 1690년-1750년간 수도원생활을 하였으며, 학문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그리스어 구사가 가능했으며, 수도원에서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전역을 순회하며 감행했던

---

<sup>18</sup> 한국인의 성명을 말살하고 일본식 이름을 짓도록 하는 이른바 ‘창씨개명’을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행하였다. 일제는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교취학을 못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매질을 가하였으며, 직장에서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심지어 우편물수송까지 금지시켰으며, 경찰관주재소로 호출하여 응할 때까지 무기한 구류해 두고 박해를 가하였다.

<sup>19</sup> 노평구 편, 『김교신과 한국』, (서울: 김교신저작간행회, 1971), p. 71 참조.

<sup>20</sup> 노평구, 상계서, p. 173 참조.

설교집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역사의식이 투철했는가를 알 수 있다. ‘파이씨이 오테즈 힐렌다르스키’는 1722년에 출생하여, 1745년에 ‘힐렌다르’수도원에 입적했으며, 그리스와 세르비아와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해 자주 생각에 잠기곤 했다고 한다. ‘파이씨이’는 ‘힐렌다르’ 수도원에서 자신의 역사서에서 취급할 자료들을 섭렵했으며, 1762년, ‘조그라프’에서 “오, 흥칙한 불가리아인이여, 왜 불가리아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가?”라는 글귀가 담긴 자신의 역사서 집필을 마친다<sup>21</sup>.

이들 외에도 ‘오테즈 힐렌다르’의 제자였던 수도사 ‘가브로보’ 출신의 ‘스프리돈’은 과거 불가리아 번영을 회고하며, 불가리아인으로서 자긍심을 품은 채 1792년 두 권의 책을 저술한다. ‘키릴 페이치노비츠’는 1816년 그의 책 ‘겨울’에서 얼마나 불가리아인들이 우매한지를, 종교적이며 정신적인 내용 접근을 통해 기술한다. ‘유리이 이바노비츠 베네린’은 그의 저술 ‘고대 그리고 작금의 불가리아인이여’를 통해 루마니아와 러시아로 이주했던 불가리아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는 ‘오드린’에 있는 그의 묘비-‘잊혀진 기억을 상기시켜 준이여, 영예롭고 슬기로운 우리 불가리아인은, 언젠가 우리의 영원인 국권이 회복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에서도 알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그리스인 교회 통치에 반대하는 흐름이 불가리아 민족 교회 운동으로 대거 확장된다. 1836년 ‘스타라자고라’와 ‘노바자고라’와 ‘카잔르크’에서 불가리아인 교회 지도자를 1838년 ‘벨리코 트르노보’에서는 ‘일라리온 크리트스키’사후,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좌에서

---

<sup>21</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68-69 참조.

그리스인 ‘파나레트’<sup>22</sup>를 트르노보 교구장으로 임명하자, 불가리아인으로 교구장을 세위달라는 요청이 일어났다. ‘코텔’ 출신 ‘네오피트 보즈벨리’는 16개지역으로부터 신임 교구장 ‘파나레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취합하고, 1840년에는 이스탄불 거주 불가리아인 신도회와 터키 지배계층의 지지까지 얻어 오스만제국 조정에 요청사항, 곧 ‘파나레트’를 퇴임시키고 ‘네오피트 보즈벨리’ 임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다<sup>23</sup>.

1843년 브라짜에서 지주 “디미트라키 토쉐프”는 브라짜 교구장 ‘메토다이’가 기독교인들에게 불법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신규 조항을 삽입한 것을 문제로 삼아, 그리스인 교회 치리를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디미트라키 토쇼프’는 터키인 유력인사들과 브라짜 지주들의 지원하에 ‘메토다이’ 감독 교체를 놓고 항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3년 간 지속되었던 그리스인 교회 통치에 대한 항거는 그리스 편에 손을 들어주는 터키권력 개입으로 사건은 종료된다<sup>24</sup>.

‘벨리코 트르노보’ 교구장으로 그리스인 ‘네오피트 비잔티오스’가 임명되고, ‘보즈벨리’는 부 교구장으로 지명<sup>25</sup> 된다. 불가리아인들을

---

<sup>22</sup> 카멘 딘코프는 ‘파나레트’는 학식이 없고 성격이 불같고 물욕에 사로잡혀 불가리아 정신사조를 억누를 뿐 아니라 이스탄불 촌 출신으로 일명 ‘파나리오트’ 그리스인이라고 묘사한다.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2 참조.

파나리오트 : 이스탄불 “페네르” 출신의 종교(기독교) 지도자이며 유력한 그리스인을 지칭하는 말. 19세기 불가리아 문예부흥기 시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됨. 『불가리아어 사전 (4판)』 (과학과 예술: 1994), p. 1015 참조.

<sup>23</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1-72 참조.

<sup>24</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1 참조.

<sup>25</sup> 총주교좌는 ‘네오피트 보즈벨리’임명은 곧 불가리아 영토 내 그리스 정교회 치리에 반대한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벨리코 트르노보’ 교구 와해가 곧 불가리아 총주교좌 몰락을 의미하는

진정시키기 위해 ‘루세’, ‘브라짜’, ‘스타라자고라’, ‘프레슬라프’ 등지에 불가리아인 감독을 임명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더 큰 불씨를 일으키게 된다. ‘벨리코 트르노보’ 사건과 ‘하티웨리파(1839)’에 준하여 불가리아 영토 내 그리스인 영도자는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이 ‘사모코프’, ‘슈텐’, ‘비딘’에 까지 번져 가면서 불가리아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투를 조직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sup>26</sup>.

#### 4. 양국의 국제 관계

##### 4.1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

기독교의 한국 선교는 일제의 통치기간과 시간적으로 겹치는 우연이 있었다. 한 · 미 · 일 관계<sup>27</sup> 유형으로 정착하는 우연을 가지게 된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굳어버린 외교패턴에 어떤 반응을 그 때마다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이, 한국교회 형성기의 선교 및 토착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sup>28</sup>.

일제의 주한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정책은 시기별로 그 방향성이 조금씩 변화하였다. 구한말에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회유분열정책’의 성격을

---

바, ‘벨리코 트르노보’에 불가리아인 교구장 세운다는 것은 위협을 불사하는 것임을 인식 불가리아인 요구사항을 부결시킨다.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2.

<sup>26</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2-73참조.

<sup>27</sup> 미국의 해군 사령관 페리는 1853-54년 원정대를 끌고 와서, 일본이 거의 2세기 동안이나 유지해 온 쇄국정책을 버리고 서구와 무역 및 외교관계를 맺게 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영국 · 프랑스 · 러시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sup>28</sup> 민경배, 상계서, p.19-23참조.

가졌고,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화한 1910년대에는 식민지에 대한 무력통치 방식대로 ‘통제탄압정책<sup>29</sup>’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 192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악화된 국제 여론을 의식해 ‘회유분열정책<sup>30</sup>’으로 돌아섰다가 일제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한 1930년대에는 구미 제국들과의 관계 악화에 따라 다시 ‘통제탄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 정책은 1940년대에 들어서 제2차세계대전에 일제가 참여한 시기를 전후해 ‘강력한 탄압정책’으로 더욱 강화되어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 송환하거나 억류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

<sup>29</sup> 개정사립학교규칙은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수 용어도 일본어로 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을 교사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개정하였다.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한국 기독교역사 연구소) p. 411 참조.

<sup>30</sup>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종교과 신설 :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유화 정책은 1921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발행한 조선 통치와 기독교 라는 자료에서 잘 나타나는데, 제3 총독부‘ 제도 개선과 기독교’에서 일제는 구체적인 유화책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종교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특히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을 얻는데 주력하여 과원 가운데 두 사람의 기독교인을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독교 신자인 직원은 영어에 능통한 촉탁으로서 주로 외국인과의 연락 기관으로서 친히 외국인과 사귀며 상호 의사를 소통함으로써 총독부 정치의 철저를 기하기에 힘썼다. 김승태 편역, 상계서, p.114, p.119-133 참조.

포교규칙 개정 : 1920년 4월 „교회당, 포교소 등의 설립을 종래 허가를 요하던 것에서 금후 제출만 하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포교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포교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포교자의 편의를 참작하였다. 1920년 3월 사립학교 규칙 개정안에서는 보통교육·실업교육·전문교육을 실행하는 학교에서 종교 관련 과목을 전면 금지했던 반면 특종학교에 한해서 종교과목 개설을 허하는 규정 통과시켰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종교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반성』(다산 글방, 1994), p. 48-49참조.

1930년대 선교사 통제와 탄압 강화의 목적은 물심양면에 걸친 조선 기독교의 구미 의존관계<sup>31</sup>를 근절하여 일본적 기독교로 순화 갱생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제와 선교사와의 관계는 1910-1920년대에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식민지 지배체제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일제는 서구 제국과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영국, 미국 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제 스스로 외부 지원 없이도 식민지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선교사들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1930년대 이후 선교사들을 적대시하며,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을 분리시키는 분열정책을 실시하였다. 분열정책의 의도는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배제시킴으로써 한국 교회를 통제, 예속시키려는 것이었다.

당시 일제는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와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1943년 5월에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과, 8월에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이 조직되었고, 1945년 7월 한국 교회는 결국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일본 기독교에 편입되었다.

#### 4.2 불가리아와 그리스와 투르크와의 관계

1860년 '일라리온'<sup>32</sup>은 투르크 정부에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좌<sup>33</sup>에서

---

<sup>31</sup> 우리 나라 새 교육의 시작인 배화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대성학교, 오산학교 외에 수많은 학교, 신문, 잡지, 병원 등이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신교의 영향으로 된 것이다. 함석헌, 상계서, p. 379 참조.

<sup>32</sup> '일라리온 스토야노비츠 미하일로브스키'는 1812년 '엘레나'에서 태어났으며 아테네 소재 대학을 졸업했으며 1841년 러시아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스탄불로 갔으나 이스탄불 총주교의 반대로 꿈을 실현시키지 못한 인물.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4참조.

분리된 불가리아 자치 교회가 필요함을 천 명의 불가리아인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함으로 표명한다<sup>34</sup>. 불가리아 교회 자치권은 곧 그리스교회와 불가리아 교회의 분리를 의미하며, 이는 곧 러시아 정교회<sup>35</sup>의 바람과 상치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교회 자치 운동의 힘은 마침내 러시아 외교 방향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점차 거세지는 불가리아 교회의 독립 운동을 지배국 투르크가 인정할 경우, 이는 곧 러시아의 바람인 ‘정교회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대<sup>36</sup>하는 것이므로, 번번이 불가리아 교회의 청원을 기각시킨다. 1856년 ‘하타후마윤<sup>37</sup>’에 입각해서 불가리아 각 지역의 민족 대표들을 이스탄불 관청으로 초청하기도 했으나, 투르크 정부는 늘 ‘교회 치리’ 문제만큼은 콘스탄티노플 총주교가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일임한다<sup>38</sup>.

---

<sup>33</sup>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법규 3번과 451년 칼케돈 공의회 법규28번에서 콘스탄티노플에도 로마와 같은 “동일한 특권”과 “교회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데니얼 B. 클레테닌, 상계서, p.50참조.

<sup>34</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9참조.

<sup>35</sup> 러시아 황제 블라디미르가 988년 서방 기독교 대신에 비잔틴 기독교를 선택한 이래 모스크바는 로마 및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제3의 로마”로 칭송받았다. 데니얼 B. 클레테닌, 상계서, p.24. 1472년 대 이반(Ivan the Great)이 비잔틴 최후 황제의 조카인 ‘소피아’와 결혼함으로써 인해 모스크바는 이때부터 콘스탄티노플의 합법적인 계승자로서 견고한 기초를 놓게 되었다. 데니얼 B. 클레테닌, 상계서, p.61참조.

<sup>36</sup> 1829년 ‘오드린’ 평화조약 이후 터키에 러시아의 막강한 영향력이 발휘된 것을 알 수 있다.

<sup>37</sup> ‘하타후마윤’은 술탄칙령으로 1856년 2월 18일,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평등하며 누구나 완전한 종교 자유가 있음을 천명한 것과 더불어 ‘하타셰리파’에서 명시한 대로 오스만제국 국민으로서 재산과 명예와 목숨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재 확인한 것을 가리킴.

<sup>38</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76-77참조.

1866년 초 „크리트“섬에서 일어난 그리스인들의 봉기는 그리스와 투르크와의 관계를 전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악화시켰으며, 이 시기에 러시아는 터키를 적으로 삼는 한편, 그리스에게 손을 들어 준다. 1867년 아테네에서는 „콘스탄티노플“ 총주교 측에 교회 독립을 외치는 불가리아를 달래볼 것을 제안했으나, 투르크 정부는 불가리아를 얻기 위해 100여년 간 끌어 온 불가리아 교회와 그리스 교회와의 문제를 종결짓는 방편으로 불가리아 교회 자치<sup>39</sup>를 인정한다.

1867년 5월, 러시아 교회 총주교 ‘그리고리이 4세’와 ‘그라프

---

<sup>39</sup> 1845년 7월 ‘일라리온 스토야노비츠’와 ‘네오퍼트 보즈벨리’가 불가리아 신도회로부터 위임 받아 오스만터키 정부청사에 제출한 청원서 내용은 첫째, 불가리아 교구권 안에는 오직 불가리아 영도자만 둘 것 둘째, 치리자 월급을 규정할 것 셋째, 백성들이 통치자를 선출하며 교체하도록 할 것 넷째, 선임된 불가리아인 대표가 직접 오스만터키 정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섯째, 이스탄불에 불가리아인 교회 성전 건축을 용인할 것 여섯째, 이스탄불을 비롯한 기타 도시에 불가리아 학교와 인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었다.

불가리아 민족의 청원 내용 중 투르크 정부가 수락한 사항으로는 ‘스타라 자고라’ 출신 불가리아인 ‘알렉산드르 에크자르호’가 이스탄불에 인쇄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한 것과 러시아 정부와 관계없이 불가리아 학원사업을 장려한 것과 1849년에는 오스만터키 정부의 도움으로 이스탄불 내 불가리아 성전 건축 허가를 승인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의 용인 하에 ‘코텔’ 출신 ‘스테판 보고리디’ 자택 내 최초 기도처소가 건립되었다.

1859년 10월 25일에는 콘스탄티노플 총주교 ‘키릴’, 알렉산드리아 총주교, 안디옥 총주교, 예루살렘 총주교, 러시아 대사 ‘크나즈 로바노프’, 세르비아 대표, 그리스 대표의 출석<sup>39</sup>하에 이스탄불 ‘페네르’지역 즉 과거 불가리아인 기도처가 있었던 자리에 불가리아인 성전 “성 스테판” 교회의 머릿돌을 놓고 축복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1859년 이스탄불에 불가리아인회가 결성되어 ‘불가리아 문집-Български книжници’을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1861년 2월 24일 투르크 정부 칙서에 따르면 불가리아인들은 예배언어로 슬라브어를 사용하며 교회 대표로 불가리아인을 임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카멘 딘코프, 상게서 p. 75-81참조.



이그나티에프가 불가리아 교회 문제 해결방안으로 불가리아 자치 교회를 인정하되, 그 구역을 다뉴브강으로부터 ‘스타라 자고라’까지로 한정된 것이 이유가 되어, 불가리아인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sup>40</sup>.

불가리아 교회를 러시아 정교회 쪽으로 규합할 목적으로 불가리아 전역을 쥐고 있었던 ‘그라프 이그나티에프’는 그리스 교회와 불가리아 교회 사이의 문제에 가급적 빨리 종지부를 찍기를 바랐다. 결국 러시아의 독촉으로 1870년 2월 28일 술탄 ‘아브돌 아지스’는 불가리아인이 한 세기에 걸쳐 싸워 온 ‘불가리아 민족 교회- Българска екзархия’를 승인하는 칙령을 내린다.

투르크 정부가 불가리아 교회 자치를 선언하게 되면서, 불가리아 교회와 그리스 교회는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 불가리아 민족 교회는 1870년 2월 28일부터 1953년까지 존속한다.

## 결론

구한말의 비운과 국권상실이 일제로 말미암아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신앙과 애국의 정서는 아무 무리 없이 혼연일체가 되었으며, 그 뼈저린 체험에서 맺혀진 일체감과 혈연감은 기독교의 한국 정착을 민족적 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달성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서북 지역을 제외한 각 지역에 분포된 ‘한국 민족교회 토착화’ 운동은, 일제로 하여금 당시 한국교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서구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에서 배제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일본의 한국의 한국 식민지 정책은 직접지배 원칙을 채택하여

---

<sup>40</sup> 카멘 딘코프, 상계서, p. 83-85참조.

시행하였으나, 이미 한국 기독교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서구 선교사들이 일본이 추구하던 직접지배에 걸림돌이 되자, 서구 선교사들의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자 한국교회 안에 형성된 ‘반 선교사 감정’ 한국교회와 서구 선교사를 갈라놓는 분열정책을 모색하였다.

결국 일제말기에 시행된 ‘동양적 일본적 기독교’ 형성은 여러 교파로 갈라져 있던 한국 교회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한국 교회를 일본 교회와 통합하려는 의도 속에 실제로 1943년 5월,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과 8월,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이 조직되었고, 1945년 7월에는 한국 교회가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일본 기독교에 편입되게 되었다.

투르크 지배하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1767년-1870년 사이에 불가리아인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좌의 치리 즉, 불가리아 교회의 그리스인의 치리를 벗어나고자 ‘불가리아 교회 독립 운동’이 ‘벨리코트르노보’ 지역을 거점으로 북부지방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남부지방까지 이르러 전국적인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땅의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서구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일제의 움직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투르크 식민지 시기인 불가리아땅에서는 오히려 투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불가리아 교회를 지배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불가리아인들의 교회 독립 운동과 1866년 ‘크리트’섬의 그리스인 봉기는 투르크와 그리스 사이를 갈라 놓게 하였으며, 이미 러시아가 그리스 편을 든 상황에서 투르크는 불가리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불가리아 교회 독립 운동을 묵과할 수는 없는 실정에 처하게 된다. 결국 불가리아 교회는 투르크와 러시아의 지지로 1870년 ‘불가리아 민족

교회' 승인을 얻어냄으로, 그리스인의 교회 치리에서 벗어 나게 된다.

한국교회가 서구 선교사들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난 것과, 불가리아 교회가 그리스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은 각기 양국 교회가 민족교회<sup>41</sup>를 수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해방은 한국교회에게도 해방을 가져왔으며, 1890년 4월 3일, 러시아 총주교좌의 '불가리아 자치 교회'선언이래 불가리아 교회는 독립교회의 길을 걷게 된다.

### 참고문헌

- 민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론(개정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2006
- 김승태, 『일제 강점기 종교 정책사 자료집 - 기독교편』, 한국 기독교역사 연구소, 1998
- 한국기독교사 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1
- 김선미, 박수철, 민덕기, 남상호, 박진우,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박성진,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 역사비평사, 2007
- 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 한울, 2000
- 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

---

<sup>41</sup> 정교회는 실제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13개의 독립적인 자치 교회들을 의미한다. 성찬, 규율, 교리, 신앙, 정치 그리고 예배 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연합되어 있지만, 13개의 교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독립자치 정교회로는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러시아, 루마니아,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루지야, 키프로스, 폴란드, 알바니아가 있다. 소규모의 정교회로는 핀란드, 일본, 체코, 슬로바키아, 시나이 반도 그리고 중국 등지에 있으나 이 교회들은 자율적이지만 독립적이지는 않다. 데니엘 B. 클레데인, 상계서, p. 255.

- 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다산글방, 1994
-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한국  
기독교역사 연구소
- 카멘 딘코프, 『불가리아교회사』, 영적 각성 출판부
- 제임스 L. 홉킨스, 『교회, 민족, 국가』 보리스 마리노프 역, 포크로프  
보고로디첸, 2008
- 데니얼 B. 클레데닌, 『동방 정교회 개론』, 김도년 역, 은성, 1996
- 『우리의 믿음』, 정교회 본부 출판부, 1986
- 토토 코예프, 디미트르 키에프, 『소신학사전』, 소피아: 불베스트2000,  
1993)
- 마리아나 크르스테바, 『바르나 사회 생활에 나타난 그리스-불가리아 교회  
문제점』, 『영적문화』, 1995
- 앙겔 에제키에프, 『에크자르흐 요셉과 국민적 애국 운동』, 『영적문화』,  
1995
- 베라 보네바, 『1856년 불가리아인이 제출한 이스탄불 청원서』,  
『영적문화』, 1996
- 이반 라레프, 『투르크 권력에 대한 1876년 4월 항쟁』, 『영적 문화』,  
1994

**Abstract**

*Kim, Se Weon*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Bulgarian religious policies and their impact during the colonial era – focused on Christian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paper is to compare the religion policies in Korea and Bulgaria. While dealing with the religion policies during both countries' colonial period, this paper limits its focus on Christianity out of Korea's typical religions namely Buddhism, Cheondogyo, and Christianity. With respect to Bulgaria, out of Bulgaria's colonial period from 1396 to 1878 it focuses on the period between 1767 and 1870, during which Bulgaria successfully attained an approval for the people's church in opposition to the reign of the archbishop Constantinople.

Japan, which had been alternating between conciliatory approach and suppression, turned back to suppression in 1930s as its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ere aggravated. While the missionaries in Korea were obstacle to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Bulgarian colonial period under the Turks empire the archbishop Constantinople governed the churches in Bulgaria. The Turks empire acquiesced the 'Greek culture expansion policy,' which was instituted by the Greek

governor of church who commanded churches to worship and preach in Greek in order to obliterate the Slavic language, which was essentially invented in church language for the Slavic peoples.

This paper observes the different outcome for the churches in Korea and Bulgaria under their own circumstances; for Korean churches, in the context of their relationship with Western missionaries going through a great deal of confusion under the Japanese oppression and for Bulgarian churches in their condition of being under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Turks and religious control of Greece. Japan's 'break-up' approach to alienate the Western missionaries from Korean churches based on the 'anti-missionary' sentiment, which had been built within Korean churches in order to shun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missionaries, was finally realized in the form of 'Eastern, Japanese Christianity.' With an intention to integrate Korean churches and Japanese churches, 'Japanese Christianity Chosun Presbyterian Denomination' and 'Japanese Christianity Chosun Methodist Denomination' were organized in May and August of 1943 respectively. In July of 1945, Korean churches were incorporated into Japan's Christianity as its official name changed to 'Japan Christianity Chosun Denomination.'

During the Turks colonial period in Bulgaria, the Turks empire allowed the Greek to govern the Bulgarian churches by acknowledging the authority of the archbishop Constantinople unlike

the conditions of Korean churches under Japanese colonialism. However, the untiring will of 'Bulgarian people's church independence movement' that had begun in 'Vratsa,' 'Starazagora,' 'Novazagora,' 'Kazanlak,' and 'Veliko Tarnovo' areas which then spread throughout the entire nation coupled with the Greek uprising in 'Crete' island led to the break-up of the Turks and Greece. Between the Turks and Greece, Russia took sides with Greece and in response to this the Turks aided Bulgarian churches' independence movement in order to receive support from Bulgaria. Bulgarian churches finally obtained approval for 'Bulgarian people's church' in 1870 with the support of the Turks and Russia and broke away from the control of the Greek church.

Korean churches breaking away from the Western missionaries' influence and Bulgarian churches evading the Greek influence provided groundwork for the churches in both countries to establish people's church.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ese imperialism on August 15, 1945 also brought about the independence of Korean churches from the integration with Japanese church. Bulgarian churches, with the Russian archbishop's declaration of the 'autonomy of Bulgarian churches' on April 3 of 1890, finally achieved their independence.